

##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혜 영\*

### I.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의 비행, 약물남용, 우울증, 자살시도와 같은 각종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그 유형과 정도에 있어 매우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수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점차 연소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윤진 등(1990)에 의하면 중고생을 대상으로 환각물 소지경험율을 조사한 결과 1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자살율은 3일에 1명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구한 결과, 우울, 불안, 반사회성, 학습장애 등 부적응적이라고 판단된 비율이 53.9%나 되고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일 외, 1983).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체 소년범 중에 14-15세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6.1%이며, 14세 미만에서도 2.5%에 이른다(법무연수원, 1997).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그 정도가 사소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인기의 우울증, 알콜중독, 반사회성 등의 만성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인자라는 점에서 소홀히 여겨질 수 없다(곽금주 외 1993). 그러나 청소년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중·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초기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타인에 대한 폭력 행사, 약물 남용, 조숙한 성행위, 기타 다양한 비행 형태 등의 외현화 문제(Externalized Problems)로 표출되기도 하고 우울과 불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한국이웃사랑회 송파아동학대상담센터 실장

안, 자살충동, 섭식장애와 같은 내재화 문제(Internalized Problems)로 나타나기도 한다(Cicchetti, 1991).

청소년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있어, Patterson은 그 시작 시기에 따라 진행경과나 원인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 초반에 최초의 비행을 시작한 조기비행자(early delinquent)는 만성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청소년 중, 후기에 비행을 시작하였던 후기비행자(late delinquent)는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점차적 비율이 감소된다. 성인기의 범죄로까지 발전하기 쉬운 조기비행자일 수록 비행을 시작한 요인이 다른 사회적 요인보다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에 기인한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습득한 반사회적 기술은 학교나 일반적 친구집단에서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지속적으로 비행집단과 관계하게 된다는 것이다(Patterson, 1989). Cicchetti(1987)등은 청소년의 강렬한 분노나 우울증 등의 내재화 문제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버려졌다는 느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특정한 문제행동의 원인론에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하나의 시각에서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다양한 문제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힐 수 없었다.

최근에 Barber(1994)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행동적 규제의 결핍은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문제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요인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Lamborn(1991)은 부모가 자녀에게 허용하는 높은 자율성의 정도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과 관련이 높다고 주장하므로써 Barber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이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유형별로 어떠한 부모양육행동이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부모양육행동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선행연구를 토대로 양육행동 요인을 재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부모양육행동척도로 부모간 양육행동요인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부모양육행동의 각 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요인의 순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변인으로 고려한 친구관계와 개인적 성격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 1) 부모양육행동의 개념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그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학자에 따라 태도 혹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Baumrind(1973)는 온정과 통제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유형의 양육행동으로 예를 들어 온정은 낮고 통제가 높은 부모는 독재적 유형이다. 이러한 부모양육행동의 유형별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Jackson(1998)은 양육유형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행동 차원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권위적인, 관대한, 독재적인, 방임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가 최소한 연구대상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유형별 접근은 연구방법상 타당도가 부족하다. 유형별 접근은 사전 결정된 기준선에 기초를 두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안에서의 상대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부모를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Weiss와 Schwarz(1996)도 부모양육행동 유형 연구는 그것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필요한 차원들의 정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유형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어 온 구체적 차원들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육행동의 구체적 차원에 관심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Barber(1996)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지지와 통제로 구분하였다. 지지는 Baumrind의 온정 차원과 유사한 것으로 애정, 친밀감을 포함한다. 통제는 심리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의 억압(Constraining Verbal Expression), 느낌의 무효화(Invalidating Feelings), 가족성원에 대한 인격적 공격(Personal Attack on Family members) 그리고 죄의식 유발의 4가지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행동의 구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온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지신(1996)은 Baumrind의 이론을 토대로 부모양육행동요인을 구성하면서, 양육행동의 구체적 차원을 애정 및 합리적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 허용의 3개 요인으로 아동이 인지한 부모양육행동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양육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유형별 연구였으며, 구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모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과잉보호, 방임을 포함시킨 경우는 별로 없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행동요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김지신의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 및 합리적 지도', '허용' 하위척도와 Barber의 심리통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체벌과 같은 강압적 통제, 과잉보호, 방임 개념을 보완하여 부모양육행동요인을 구성하였다.

## 2)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개념

청소년의 부적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억누를 수 없는 심한 불안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만성적인 범법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적응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는가는 개인의 타고난 기질, 성장의 경험, 주위환경의 영향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1983년 판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에서는 적응 장애가 발달단계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리라는 가정 하에 남녀 각각 만4-5세, 6-11세, 12-16세의 세 연령 집단, 총 6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요인분석하고 각 집단에 따라 일부 하위척도는 달리 나타냈다(Archenbach,1983).

오경자(1990)등은 CBCL을 한국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하였고 문제행동증후군(K-CBCL)을 4-6세, 6-11세, 12-17세 세 연령별로 나누어 추출한 바 있다. K-CBCL은 4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 문제행동증후군을 부모 관찰식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 12-17세의 청소년 문제행동증후군을 파악하기 위한 K-YSR(청소년용)은 자기보고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등의 K-YSR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재화 문제, 위축, 신체화 증상, 우울/불안, 외현화 문제, 비행,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 사고력 문제, 주의집중 문제를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 1.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부모-자녀관계 이론

자녀의 사회화는 부모 양육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회형성모델과 양육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행동도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준다는 상호영

양모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회형성모델(Social Mold Model)은 아동 및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Hartup(1978)의 '사회형성모델'에 기초를 두어왔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족 사회화 과정을 아동 및 청소년이 처해있는 틀 혹은 형판(Mold)에 비유한다. 가족상황은 자녀의 사회화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차적 초점으로 생각된다. 가족환경은 아동 및 청소년이 가정 이외의 사회화 집단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적응과 상호작용유형의 발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한다.

사회적 형성모델에 대한 대안적 이론은 상호영향모델(Reciprocal Effects Model)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양육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 행동도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아동행동도 부모의 반응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Lytton,1990). Santrock(1983)은 인간행동의 학습과정을 분석하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부적응 행동 내지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강화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반사회적 행동 역시 부적응한 사회학습과정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박성주,1991). 부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강압이론과 심리통제이론을 들 수 있다.

### 1) 강압이론

강압이론을 제시한 Patterson(1982,1989)은 부모 행동은 자녀 비행에 중요한 원인론적 역할을 제공한다고 본다. 즉, 아동이 사회적 행동 또는 비행행동을 수행하는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역할을 강조한다. 양육능력이 서툰 부모는 무심결에 아동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비행에 대해서 효율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강압이론에서는 가족을 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까지 훈련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이 발전하게 되는 단계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가정에서의 비효율적인 양육으로서 이는 아동의 무질서한 행동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아동의 가정은 거칠고 일관성이 없는 훈육, 자녀에 대한 부모의 낮은 참여, 자녀의 행동에 대한 낮은 감독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여기에서 자녀들은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두 번째 단계로서 아동의 무질서한 행동은 학업의 실패와 정상적인 친구집단으로부터의 거부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중적인 실패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 번째 단계인 비행집단에 가입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비행 또래 집단은 청소년들에게 특정비행행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지지하는 태도, 동기, 합리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마지막 단계는 주로 아동기 후반 및 청소년기 초반에 나타난다. 취학이전이나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에서 반사회적인 훈련을 받은 소년들은 친구집단이나 학교에서 긍정적인 사회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세 가지 발달단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비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2) 심리 통제이론

부모는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적이어서 자율성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유은희(1992)는 부모가 대화 중에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해 놓고 발뺌을 한다든지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가 하면 냉소적인 반응들을 보이거나, 자녀의 경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일에 지나치게 간섭적인 경우도 자율성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얘기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지레짐작하여 이미 얘기해 버리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이 크고 자신에 대한 불신과 혼돈을 하게 된다. 더욱이 자신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에 도 개방적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족 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Constanzo와 Woody(1985)도 부모의 방해적인 심리적 통제(intrusive psychological control)가 자녀의 자기발견에 대한 기회를 제한하며, 개별화 과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 가치와 자아정체감을 인식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심리적 자율성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학습된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스트레스나 압력에 접하였을 때 그들 자신을 심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내향적이 되거나 위축된다(Seligman, 1986).

Barber(1992)등은 부모 양육의 구체적 차원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유형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연구하였다. 심리적 통제란 언어적 표현의 억압(Constraining Verbal Expression), 느낌의 무효화(Invalidating Feelings), 가족성원에 대한 인격적 공격(Personal Attack on Family members), 죄의식 유발이다. 언어적 표현의 억압은 행동을 통해 다른 가족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느낌의 무효화는 가족성원들이 다른 성원의 말을 잘못 해석하거나, 느낌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다른 성원이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표현된 느낌에 반응할 때 빈정대거나 놀리는 것을 말한다. 인격적 공격은 가족성원들이 다른 성원의 가치를 공격하거나 가족에 대한 자녀의 충성심을 의심하거나 가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대신 다른 성원에게 돌리는 것이다. 죄의식 유발은 현재의 사건에서 언제나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 내어 비난을 일삼

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으로 통제적인 환경과 아동의 내향적 특성의 상관성은 통제가 심리적인 자율성 발달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강압이론과 심리통제 이론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행동이며, 이것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나타낸다. 즉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강압적인 훈육을 함과 동시에 자녀 행동에 대한 감독의 부재와 같은 부적절한 사회화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언어적 표현의 억압, 죄의식 유발, 느낌의 무효화, 인격적 공격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증, 섭생장애, 자살기도와 같은 보다 내재화된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9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동안 서울시내 일반 청소년 611명(초등학생 317명, 중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청소년은 서울특별시에 국한하여 다단계집락표집(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하였다. 즉, 서울시 25개 지역구에서 8개 區를 선정하고 각 區별로 1개 洞씩 추출하였다. 각 洞별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과 중학교 3학년 한 학급씩을 추출하였다. 초등학생 330명과 중학생 320명 총 650명이 최종 대상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638부 중 부모 양친이 없는 21명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편집과정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6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11명(초등학생 317명, 중학생 294명)을 초기 청소년 연구대상자로 결정하였다.

#### 1) 부모 양육행동 척도

##### (1) 척도의 내용 타당도 과정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김지신(1996)의 양육행동척도 중 하위척도(애정 및 합리적 지도, 허용)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

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Barber(1992)의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강압적 통제, 방임, 과잉 보호에 관한 개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양육행동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아동학과 발달심리학 전문가 5인에게 의뢰하여 문항검증을 받았다.

친밀감 및 합리성 개념은 애정, 수용,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및 합리적 지도를 의미한다. 통제 개념은 언어적 표현의 억압, 자녀의 생각이나 느낌을 무효화, 죄의식 유발, 인격 무시와 무조건적 복종 강요, 체벌, 훈육의 비밀관성, 무분별한 분노표현을 의미한다. 과잉보호 개념은 자녀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맞지 않게 어린 아동으로 취급하고 지나치게 염려함을 의미한다.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 자녀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한다. 방임 개념은 자녀의 신변과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고, 방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 (2) 척도의 구성타당도 과정

99년 5월 10일부터 30일 까지 양육행동척도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의 25개 區에서 무작위로 2개구를 추출하고 선정된 2개 구에서 각각 1개 동씩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각 동에 소재한 중학교 목록에서 1개 학교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학교 2학년 전체학생 총 52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491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의 요인이 모두 1이상의 고유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큰 고유값을 가진 I 요인은 7.614이다. II요인은 3.742의 고유값을 보였고, III요인은 1.504의 고유값을 나타내었으며, IV요인의 고유값은 1.159으로 나타났다. 척도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행동요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문항을 분석하여 묶인 4개의 요인을 토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 추출방법은 최소 제곱법 (Generalized Least Squares) 으로 추출된 4개의 요인들을 직교회전(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시킨 후, 10번의 반복 수렴(Rotation converged in 10 iteration)을 거쳐 문항들이 차지하는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으로 양호한 문항을 선정하고 이하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I 요인의 최종 문항은 19 문항이었다. II 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최종 문항은 11 문항, III, IV 요인은 각각 4개 문항씩으로 묶이게 되었다.

본 조사도구는 I 요인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9254, II요인의 문항들도 신뢰도가 .8295이며, III 요인 .7943이고, IV요인에서도 .6451로 대체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이와같은 요인분석결과 I요인을 친밀감 및 합리성, II요인을 통제, III요인을 과잉보호, IV요인을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Achenbach(1983)의 아동/청소년 문제 평가 척도(CBCL)를 한국어판으로 제작한 오경자 등(1990)의 청소년용 문제 평가 척도(K-YSR)를 사용한다. Achenbach는 원점수 대신에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응답자들의 원점수가 규준집단의 점수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K-YSR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68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76 이었다.

## 3) 개인의 성격적 특성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를 이현수(1998)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간이성격차원검사는 내외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내용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내외향성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alpha$  .91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척도였다.

## 4) 친구 관계 척도

친구와의 관계는 Hudson(1992)의 친구관계 척도(IPR)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IPR은 신뢰(T), 의사소통(C), 소외(A)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T), .91(C), .86(A)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C)하위척도는 청소년의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지지적인가를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alpha$  .92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척도였다.

## 2.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연구 목적에 적합한 통계 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PC+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비율분석(ratio

analysis)을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부모양육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사후검증시 scheffe)를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하여 t-test와 단계적 다변량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총 문제행동은 표준화된 점수(T점수) 63T점이상이 10.1%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는 63T점 이상이 11.9%이며, 우울/불안은 10.6%, 위축, 신체화 증상은 각각 10.1%를 나타내었다. 외현화 문제는 63T점 이상은 7.2%이고, 공격성은 9.8%, 비행은 6.7%로 나타났다. 사회적 미성숙은 63T점 이상이 11.8%를 차지하였고, 사고의 문제가 11.0%, 주의집중문제가 7.9%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일반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1>에서 정리된 바와 같다.

학년 구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의집중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유형에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신체화 증상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외현화 문제, 비행 문제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총문제 행동, 위축, 우울/불안, 내재화 문제, 주의 집중문제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중·상인 집단보다 문제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별로 비행, 공격성, 외현화 문제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직종별로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의집중 문제의 정도는 단순기술직이 중간관리자, 고위직/전문직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 직업유무와 내재화 문제와 무관하였지만, 비행, 공격성, 외현화 문제에서 어머니 직업이 있는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총 문제, 위축, 우울/불안, 내재화 문제, 비행, 외현화 문제,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이 고졸인 집단보다 문제 정도가 높고, 중졸이하인 집단이 대졸이상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사회적 미성숙 문제, 신체적 증상, 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문제 정도가 중졸이하인 집단이 고졸인 집단 보다 높았고, 중졸이하인 집단이 대졸이상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있었지만, 특히 경제 수준은 주로 내재화 문제에 차이를 나타내고 부모의 학력은 거의 모든 문제유형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초기청소년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차이

부적응 변인	위축	신체 증상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력 문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문제
학년	-	-	-	-	-	-	-	중학생	-	-	-
성별	-	여학생	-	남학생	-	-	-	-	-	남학생	-
경제수준	하	-	하	-	-	하	-	하	하	-	하
아버지 직종	-	단순 기술직	-	-	-	-	단순 기술직	단순 기술직	-	-	-
어머니 직업유무	-	-	-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	중졸 이하	중졸 이하	-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	중졸 이하	중졸 이하	-	-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 상,중,하 \*\* 단순기술직, 중간관리직, 자영업, 전문직/고위직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차이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2>와 <표3>에서 정리된 바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생 보다 어머니의 친밀감 및 합리성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한 반면, 방임은 중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친밀감 및 합리성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지만, 통제와 과잉보호는 남학생이 더 높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수준

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상류인 집단과 중류, 상류 집단과 하류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중류집단과 하류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친밀감 및 합리성의 정도는 고위직/전문직이 단순기술직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임은 아버지가 자영업인 경우 전문직/고위직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는 친밀감 및 합리성이 단순기술직인 집단과 중간관리자, 고위직/전문직인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방임은 아버지가 자영업인 집단이 고위직/전문직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양육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변인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친밀감 및 합리성의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2>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

배경변인	어머니양육행동	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	과잉보호	방임
학 년		초등학생	-	-	중학생
성 별		여학생	남학생	남학생	-
형제순위		말이	-	-	막내
경제수준		상	하	-	-
아버지 직업		고위직/전문직	-	-	자영업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	-	-

<표3>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 양육행동의 차이

배경변인	아버지양육행동	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	과잉보호	방임
학 년		초등학생	-	-	-
성 별		여학생	남학생	남학생	-
형제순위		말이	-	-	막내
경제수준		상	-	-	-
아버지 직업		중간관리자	-	-	자영업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	-	-

## 2. 가설 검증

### 1) 부모간 양육행동의 차이

가설 I.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버지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요인이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친밀감 및 합리성과 과잉보호의 정도는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기 때문에 가설I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보다 더 자녀에게 수용적, 애정적이고, 일상 생활에 많은 관여를 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고 동시에 지나치게 자녀에게 간섭하여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았다. 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부모양육행동 영향력

가설 II.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 부모의 친밀감 및 합리성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기타 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II-2.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 기타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II-3. 부모의 과잉보호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II-4.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부모의 각각의 양육행동 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총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 그리고 과잉보호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청소년의 총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그러나, 방임은 총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 및 합리성은  $\beta = -.194$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과잉보호는  $\beta = .153$ , 통제는  $.149$ 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내재화 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요인을 <표5>에서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친밀감 및 합리성은 내재화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통제, 과잉보호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방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요인을 <표6>에서 살펴보았다. 외현화 문제는 친밀감 및 합리성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고 다음으로 통제, 방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잉보호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와 과잉보호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초기청소년의 총 문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기타 문제에서 동일하게 친밀감 및 합리성이 가

장 큰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통제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과잉보호와 방임은 통계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 어머니, 아버지의 친밀감 및 합리성이 초기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기타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II-1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aumrind(1991a)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지지적이며 엄격한 권위적 부모가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표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총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	계수(B)	SE B	$\beta$	p값	R <sup>2</sup>
통제	2.155	.670	.149	.0014	.0644
친밀감 및 합리성	-2.575	.530	-.194	.0000	.0323
과잉보호	1.758	.525	.153	.0009	.0162
방임	.245	.455	.021	.5905	.0004
상수	49.794				
영향력 전체					.1133

본 연구결과 초기 청소년의 총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친밀감 및 합리성이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통제 요인이 초기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기타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II-2가 입증되었다. 어머니의 과잉보호 요인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력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가설 II-3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어머니의 방임요인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설 II-4도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방임요인은 총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Barber(1996)의 연구결과 즉, 부모의 방임, 행동적 규제의 부재 등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만 관련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다. 최충욱(1984)도 부모가 지나친 폐쇄성, 방임성, 통제성, 과보호성등의 심리적 특성은 청소년 비행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 방임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의 순수 영향력

가설 III. 개인 성격과 친구관계를 통제하더라도 부모양육행동이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III-1. 개인 성격과 친구관계를 통제하더라도 부모양육행동이 초기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III-2. 개인 성격과 친구관계를 통제하더라도 부모양육행동이 초기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III-3. 개인 성격과 친구관계를 통제하더라도 부모양육행동이 초기청소년의 총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양육행동의 순수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친구관계와 개인적 성격특성을 통제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총문제의 경우 아버지의 친밀감 및 합리성과 통제,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에 있어 아버지의 친밀감 및 합리성, 어머니의 과잉보호, 아버지의 통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 친구관계와 개인적 성격특성을 통제한 후 아버지의 통제와 친밀감 및 합리성, 어머니의 친밀감 및 합리성, 어머니 방임이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III은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5> 어머니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	양육행동	계수(B)	SE B	$\beta$	p값	R <sup>2</sup>
내재화	통제	1.977	.667	.136	.0032	.0521
	친밀감 및 합리성	-2.542	.531	-.191	.0000	.0271
	과잉보호	1.547	.528	.134	.0036	.0128
	방임	.153	.516	.094	.1897	.0002
	상수	51.206				
영향력 전체						.0922
위축	통제	2.365	.689	.160	.0006	.0530
	친밀감 및 합리성	-2.964	.544	-.218	.0000	.0402
	과잉보호	.950	.539	.081	.0784	.0045
	방임	.172	.467	.014	.7135	.0002
	상수	53.206				
영향력 전체						.0979
신체적 증상	친밀감 및 합리성	-1.870	.559	-.138	.0009	.0149
	통제	1.206	.707	.082	.0886	.0203
	과잉보호	.996	.554	.085	.0725	.0088
	방임	-.017	.480	-.001	.9710	.0000
	상수	51.777				
영향력 전체						.0440
우울/불안	통제	1.635	.686	.113	.0175	.0404
	과잉보호	1.621	.537	.141	.0027	.0142
	친밀감 및 합리성	-1.827	.542	-.137	.0008	.0123
	방임	-.058	.466	-.005	.9007	.0000
	상수	49.176				
영향력 전체						.0669

<표6> 어머니 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	양육행동	계수(B)	SE B	$\beta$	p값	R <sup>2</sup>
외현화	통제	2.527	.670	.174	.0002	.0668
	친밀감과 합리성	-2.996	.529	-.225	.0000	.0401
	방임	1.149	.525	.099	.0289	.0065
	과잉보호	.505	.455	.043	.2674	.0018
	상수	51.061				
영향력 전체						.1152
비행	친밀감 및 합리성	-3.617	.503	-.282	.0000	.0820
	통제	2.179	.637	.156	.0007	.0453
	방임	1.082	.499	.098	.0304	.0062
	과잉보호	.499	.432	.044	.2483	.0019
	상수	53.631				
영향력 전체						.1254
공격성	통제	2.278	.687	.156	.0010	.0504
	친밀감 및 합리성	-2.140	.543	-.160	.0001	.0194
	방임	.987	.538	.085	.0672	.0047
	과잉보호	.420	.466	.036	.3680	.0012
	상수	49.482				
영향력 전체						.0757

###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및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결과는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초기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결과는 부모양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함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집단과 14-15세 청소년 집단간의 비행 정도가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비행의 연령별 분포가 97년 현재 14세 미만은 2.5%인 반면, 14-15세는 26.1%를 보임으로써 중학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고되었다(법무연수원,1997). 이와같은 결과의 차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14세 미만의 숨겨진 비행(hidden delinquent)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어린 연령에 비행을 시작한 조기비행자일수록 성인기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Patterson,1991)을 고려해 볼 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사소한 비행이라 하더라도 가벼이 보아서 안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



의 청소년들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우울/불안, 위축등 내재화 문제가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낮은 경제수준이 부모의 생활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애정적이며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긍정적 양육태도보다 비일관적이며, 지나치게 처벌적인 양육을 하므로써 자녀의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의 생활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건강을 향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무관하였지만, 비행, 공격성, 외현화 문제에서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직장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청소년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비행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초기 청소년의 모든 문제유형에 부모의 수용, 애정, 일상생활의 관심과 이성적 설득을 통한 훈육 등이 부족할 때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감정이해, 효율적인 훈육방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훈련등을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기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양육행동척도 즉, 친밀감 및 합리성의 하위개념들을 토대로 개발할 수 있다. 즉, 수용 및 경청기술,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 합리적인 설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적 프로그램은 초기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이 성인기의 범죄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정서적 건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양육행동요인 중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자율성 억제와 같은 과잉보호는 내재화 문제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방관과 무관심 등의 방임은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부적응 유형별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양육요인의 차이는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 개별 사례를 사정, 개입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 기능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아버지 보다 빈번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해왔다(Berk,1991).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친밀감 및 합리성과 통제가 어머니 양육행동보다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기타 문제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매우 주목된다. 자녀에 대한 관심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아버지의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어머니들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팜플렛, 소책자, 비디오, 오디오 테잎 등 다양한 교재를 마련하여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부모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Vol. 6. No.2, p.30.
- 김영익,홍강의. 1986. "소아 정신과 외래 청소년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6, 183-192.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신건강연구, 1집, 1-39.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성주.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1. p23-56.
- 법무연수원 통계. 1997. 청소년 백서.
- 오경자, 이혜련. 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증후군 I". 한국심리학회지, 9권 1호, 33-48.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최윤진 외. 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p.112-114.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_\_\_\_\_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Shagle, S. C. 1992.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 social-ecological analysis", *Family Perspective*, 26, 493-515.
- Barber, B. K., Olsen, J. E.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_\_\_\_\_ 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2 No.2, April 1997 287-315.
- Baumrind, D. 1991a.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9-95.
- \_\_\_\_\_ 1971.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7. ed. by A. D. Pick, Mi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icchetti, D., & Toth, S. L. (Eds.). 1991.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Hillsdale NJ: Erlbaum.
- Cicchetti, D., Carlson, V., Braunwald, K., G., & Aber, J. L. 1987. Gelles, R. J., & Lancaster, J. B.(eds) *Child Abuse and Neglect*. ALDINE DE GRUYTER., 255-315.
- Constanzo, P. R., & Woody, E. Z. 1985. "Domain specific parenting styles and their impact on the child development of particular deviance: The example of obesity prone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 425-445
- Hartup, W.W. 1978, *Perspectives on child and family interaction past, present, future*.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A life-span perspective*.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Lamborn, S., Nina, S., Mounts., Steinberg, L., Dornbusch, S.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